



강진 김영일



곡성 김광휘



구례 박진호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광양 김승호



순천/광양 황경석



여수 김석철

## 순천시, 호남권 최대 '창업보육센터' 설립 위한 잔걸음

### 허석 시장 中 북경 중관촌 방문 업무협약 등



허석 순천시장은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북경을 방문해 호남권 최대의 '창업보육센터' 설립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순천시는 이번 허석시장의 북경 방문이 지난해 10월 중국의 실리펀 벨리로 불리는 북경 중관촌 방문시 관리위원회와 기업대표들을 만나 '호남권 최대 순천형 창업보육센터 설립'에 서로 협력하기 한 구두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는 것.

5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방문에서 순천 허석시장은 중관촌 사회조직연합회, 마네초지국제예술센터 등 2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관장동동클럽 주식 장조용을 투자유치 자문위원으로 각각 위촉했다.

허석시장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방중기간 동안 활동내용을 소개하면서 장동동클럽 장조용 주식은 40여개 기업대표와 함께 순천 방문을 약속했고, 중관촌 사회조직연합회 타이젠 비서장은 조직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중관촌 창업기업가들의 비즈니스센터인 마네초지예술센터 진씨운 이사장은 여성기업가들과 함께 순천을 방문하기로 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중관촌은 연평균 6000여개의 기업이 창업되며 현재 2만여개의 첨단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어, 중관촌 관계자의 자문위원 위촉은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준비중인 '순천 창업보육센터' 설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중관촌 관계자외의 건밀한 협력으로 그들의 우수 사례와 노하우를 습득하는 기회로 삼고, 발전적인 '순천형 창업 모델'을 구체화 해 나가겠다"고 순천의 미래를 제시했다.

허석시장은 이번 중국방문 일정에 2019중국베이징세계예비박람회 조직위원회와 현재 조성중인 순천정원 현장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 광양시, 주민숙원사업 추진 속도 낸다



광양시가 실질적으로 구성된 합동 설계단 운영을 통해 206건 42여명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생활민원형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시민들의 영농과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마을 안길 및 농로 포장, 용?배수로 등을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시설공무원 25명으로 구성된 합동 설계단을 운영해 자체적인 조사측량과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2월 계약 체결과 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번 합동 설계단 운영으로 2여명의 예산 절감과 함께 신규 시설공무원들의 기술정보 공유, 설계 및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현지 조사측량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현장 여건에 적합한 설계를 실시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

정문태 건설과장은 "마을 안길과 농로 포장, 용?배수로 설치공사 등을 조기에 준공함으로써 주민숙원사업들을 순차적으로 해결해나가고 있다"며 "재정 신속집행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영농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황경석 기자

## '순천 랍사르 습지도시 주민 공모사업' 신청·접수

순천시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습지도시의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자율 참여를 통한 환경실천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순천 랍사르 습지도시 주민 공모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모사업은 순천 랍사르 습지도시로 인종된 별량면(화산, 무풍, 마산, 구룡), 해룡면(선화, 농주, 상내), 도사동(교량, 대대, 안중, 인월) 등 11개 법정마을과 순천시 관내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응모대상 사업 유형은 순천만생태자원을 이용한 산업화 등 '생태자원화', 습지 보전을 위한 '주민

인식증진사업', 마을 역사와 생태문화적 가치와 특성을 살린 '생태마을가꾸기' 등 랍사르 습지 보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다.

지원대상 사업은 2월중에 순천민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주민 참여도, 사업의 창의성, 지속성, 효과성 등 심사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 신청을 원하는 랍사르 습지도시 주민단체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순천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이용하여 31일까지 순천시청 순천만보전과(061-749-6080)로 제출하면 된다.

순천만보전과 조영익 과장은 "순천시가 랍사르습지도시로 인증 받은 후 첫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제안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순천 랍사르 습지도시는 2014년 시민 발의 '순천만 보전·관리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매년 전진년도 순천만 수익의 10%를 습지보전과 주민공모사업에 지원해 왔다.

순천=황경석 기자

## 보성군, 제58회 전남체전 앞두고 '전지훈련 열기로 후끈'

### 역도·야구·축구 등 총 31개 팀 680여 명 찾아



보성군은 지금 제58회 전남체전을 앞두고 전지훈련을 위해 찾은 선수단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하다.

현재 보성군을 찾은 전지훈련팀은 역도13팀, 야구1팀, 축구 1팀과 축구 스토리브 참가 16개 팀 등으로 총 31개 팀 680여 명으로 이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5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보성은 남해안의 따뜻한 기후 및 꼬막, 낙지 등 제철을 맞은 풍성한 먹거리와 녹차밭 등 우수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겨울철 최적의 훈련지로 매년 다양한 종목의 훈련팀이

방문하고 있다.

전지훈련에 참가한 선수들은 보성다목적트레이닝장, 회전생태공원 야구장 등에서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 팀의 정규훈련 외에도 최근에 개장한 보성국민체육센터에 방문하여 수영강습 등을 받으며 기량향상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9년 연속 학생 주말리그 축구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는 벌교 축구장에서는 목포시청 축구팀이 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학 4팀, 고등부4팀, 중등부8팀이 축구 스토리브에 참가해 훈련의 열기를 한층 높이고 있다.

또한, 오는 24일부터 2월 12일까지 역도 국가대표 상비군이 보성다목적트레이닝장에 2018년 이후 재방문할 예정으로 국가대표팀 합류로 보성군의 전지훈련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성=안구일 기자

## 제21회 광양매화축제 기본계획 심의

### 관광객 선호 프로그램 개편 및 교통체증 등 불편 최소화 노력

광양시는 2019년 전라남도 대표 축제로 선정된 광양매화축제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매화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김승호 광양문화원장)를 열고 기본계획을 심의한다.

시는 18일 시청 상황실에서 추진위원회 위원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21회째를 맞는 광양매화축제의 대표 프로그램과 개선사항 등을 집중 논의한다.

광양매화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매화꽃 전국, 여기는 광양!'이라는 주제로 오는 3월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다

양면 매화마을 일원에서 펼쳐진다.

올 축제는 '드론이 보는 꽃 세상'이라는 프로그램으로, 4차산업의 꽃인 드론을 이용해 개화 상황과 축제현장을 실시간 안내하고, 크리에이터를 양성해 축제현장을 유튜브 동영상으로 생중계한다.

또 '뽕들의 매화랑 삼진강 이야기'를 통해 꽃 키우는 농사꾼 흥성리·삼진강 시인 입담꾼 김용택·노래하는 소리꾼 장사익을 초청한 특별한 토크공연을 준비한다.

고질적인 교통체증 해소와 관광

객들의 편의를 위해 둔치주차장~행사장 가로수길(1km) 개설과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중마동~행사장 시내 순환버스와 광주터미널 입시 고속버스 확대를 검토 중이다.

여기에 더해 수월정~하동 삼진강에 '화합의 부교'를 설치해 하동에서 행사장까지 이동시간을 단축하고 부교 위에서는 광양시, 구례군 하동군 주민들의 영호남 화합과 상생을 위한 연어 치어 방류행사를 개막행사로 대체한다.

또 도로변 불법 야시장 단속에 집중하고 노점상 구역에는 공공부스 및 각종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 힐링축제에 큰 방해가 됐던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

광양=김승호 기자

www.jepa.kr

##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소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절한 인사관리방안 안내